가을 문턱서 만난 '사찰음식 진수'

봉녕사 제14차 사찰음식대향연
10월 6~7일, '생명 살리는 음식'
경연회 · 전시 · 명상 등 프로그램
"자연 · 조화" 의미 두부 만들기도

수원=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수원 봉녕사가 10월 6~7일 '사찰음식대향연'을 개최하고 우주 생명을 살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해보다 플레이팅 수준이 높아졌네요. 아름답습니다. 맛뿐 아니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심사위원 대우 스님)

"사찰음식 본연의 정갈함을 다 표현해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심사위원 성견 스님)

사찰음식 경연대회가 열린 수원 봉녕사 육화당. '맛있는 음식은 마음으로 만들어 진다' '제철 채소들과 꽃들에서 오방색을 발견하다' '도란도란 함께하는 가을' 등으로 이름 붙여진 각양각색의 사찰음식이 심사대에 올랐다.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들의 눈빛엔 설렘과 진지함이 감돌았다.

사찰음식으로 불교의 맛과 멋을 알려온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가 10월 6일 제14차 사찰음식대향연의 막을 올렸다. '우주 생명을 살리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현시대 화두인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사찰음식의 친환경적 가치를 대중과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경내 곳곳에서는 전시 · 명상 ·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선선한 가을 사찰을 찾은 방문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다.

축제는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로 시작됐다. 심사위원은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을 비롯해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금강율학승가대학원 명예교수 대우 스님, 율주 적연 스님, 사찰음식 전문가 동원 · 성견 스님이 맡아 음식의 맛, 재료 선택, 완성도 등 꼼꼼히 살폈다. 심사를 마친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사찰음식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은사 묘엄 스님의 유지를 토대로 평가 기준을 삼았다"며 "대회를 계기로 사찰음식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자연과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와 힐링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품작들과 함께 박성희 궁중음식전문가의 '감로도, 불교음식을 그리다'와 동원 스님의 '스님들의 단백질, 콩!', 성견 스님의 '우주의 진리와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성불음식'이 전시돼 볼거리를 더했다.

이어 대적광전 앞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상징하는 '두부 만들기 시연 퍼포먼스'가 열렸다. 주지 진상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당선자 광용 스님,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국산 콩을 맷돌에 넣고 직접 갈아 두부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두부는 모두가 함께 시식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격려 방문한 광용 스님은 "가을 산사에서 음식문화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금 공부하는 좋은 시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전 11시 경내 도서관 2층에서는 차명상도 진행됐다. 율주 적연 스님의 지도 아래 50여 명의 참가자들은 미세하게 달라지는 차의 색과 향기, 맛에 집중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인 소개로 차명상을 체험한 이상숙(69) 씨는 "요즘 세상이 각박한데 마음이 평온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듯하다"며 "사찰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명상을 접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경내 금탑 앞에서는 육법공양과 나눔찻자리가, 야외무대에서는 법송 스님의 사찰음식 실습강좌가 진행됐다.

7일에는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 수강생들의 졸업식을 시작으로 차명상, 육법공양,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특강, 탁발시연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과 함께 조선마술패와 봉녕사 우담화합창단의 공연이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봉선사 교리경시대회, 내년 봄엔 상월결사 주제로"

10월 9일, 개산 1054주년 행사
주지 호산 스님 대회 확대 강조


10월 9일 봉선사에서 개최된 불교 교리경시대회에는 100여 명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봉선사가 개산을 기념해 지난해부터 큰말씀 겨루기대회(불교교리 경시대회)를 열고 있는데 대회 횟수를 늘려 내년 봄엔 상월결사를 주제로 열겠습니다."

10월 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이 불교교리 경시대회의 확대를 약속했다. 봉선사 개산 1054주년 기념 제2회 봉선사 불교교리 경시대회에서다. 스님은 이날 경내 청풍루에서 진행된 일반부 경시대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호산 스님은 "전날 열린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대회를 보며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걸 느꼈다"며 "더 많이 교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봄에 한 차례 더 대회를 만들어 축제의 장을 연 2회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오는 25일 봉행되는 주지 진산식에서 상월결사와 관련된 책을 나눠드리고, 그 책을 주제로 문제를 만들어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시대회 확대가 새로운 순례문화 보급에 이어 대학생 포교에 사활을 건 상월결사의 취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호산 스님은 기대했다.

이날 100여 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일반부 대회는 15개의 OX문제와 패자부활전, 주관식 문제 등으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첫 문제는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인 삼보가 불 · 법 · 승이 맞는지 묻는 문제. 첫 문제인 만큼 누구나 맞출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했지만 1번 참가자 혼자 X를 적으며 예상치 못한 탈락자가 나왔다.

이후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대회는 고작 7번째 문제에서 위기에 봉착했다. 싯다르타 태자가 성문 밖에서 생로병사를 접하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출가 청원'인지 묻는 문제. 출가 청원은 마하파자파티가 여성들을 이끌고 부처님에게 여성 출가를 청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사문유관과 헛갈리며 탈락자석으로 이동했다.

대회 시작 10여 분만에 자리를 지킨 참가자가 몇 남지 않자 바로 패자부활전이 진행됐다. 패자부활전마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선 주지 호산 스님이 상품권을 내걸고 문제를 출제하며 위로했다.

일반부 대회인 만큼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거듭하며 대상의 영예를 안은 건 63번 참가자 장성윤 씨였다. 금상 김미향 씨, 은상 고경호 씨, 동상 최창열 씨도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대상을 수상한 장 씨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스님들, 대중 모두 감사드린다. 요즘 틈날 때마다 염불을 하는데 운이 작용한 것 같다"며 미소를 보였다.

한편 경시대회에 앞서 오전에는 큰법당 앞 특설무대에서 개산 1054주년 개산대재 법요식이 거행됐다.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괘불과 불패 이운의식을 비롯해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신중작법이 행해졌다. 법요식에는 봉선사 회주 밀운 대종사와 주지 호산 스님,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 교육원장 범해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DL이앤씨 8번째 희생자…극락왕생 기원"

조계종 사노위, 10월 11일 본사 앞
故 강보경 노동자 추모위령재 봉행



올해 8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故 강보경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노동 현장의 안전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법석이 엄수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사노위)는 10월 1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본사 앞에서 'DL이앤씨 산재사망 노동자 故 강보경 추모위령재'를 봉행했다.<사진>

故 강보경 씨는 하도급업체 KCC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올해 8월 11일 DL이앤씨(전 대림건설)가 시공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소재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실 창호 유리교체 작업 중 20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고층 작업이었음에도 현장에는 추락에 대비한 고리 · 안전망 등의 안전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날 추모위령재는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동시에 죽음의 진상 규명과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의식은 조계종 어산종장이자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이수자인 동환 스님의 집전으로 30여 분간 진행됐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과 동료들은 고인의 영정사진이 모셔진 영단에 헌화하고 절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의식에 앞서 지몽 스님은 "더 이상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철저한 안정장치를 갖춘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보경 노동자와 노동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노위는 10월 12일 오후 6시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산재사망 노동자 고 장덕준 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김내영 기자

보리수아래, 한국 · 몽골 공동시집 발간

6명 시인 작품…한국어 · 몽골어로 80편 수록



장애불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보리수아래가 아시아장애인 공동시집 다섯 번째 '내 심장의 반쪽'을 발간했다.<사진> '내 심장의 반쪽'은 한국과 몽골 중증장애시인들이 문학으로 소통과 교류를 하며 마음을 연 시집으로 한국과 몽골 중증장애시인 6명의 작품 80편이 한국어와 몽골어로 수록됐다.

일상의 삶과 경험을 써내려간 주옥같은 시들에는 자신과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들이 담겼다.

이 책에 참여한 작가들은 각자 작가로서 작품집을 내고 등단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이다. 시인들은 장애로 인한 삶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희망을 놓지 않고 문화예술의 교류로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낸다. 한 편, 한 편, 시를 읽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공동 시집의 발간은 장애인들의 재능개발 및 예술 활동 지원은 물론 아시아 국가 장애인들과 한국장애인들간에 국제교류의 장을 만들어주고 한국장애인들의 활동을 아시아국가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2017년에 미얀마, 2018년에는 베트남, 2020년 일본, 2021년 인도네시아 장애시인들과 공동시집을 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장애계에서도 유일한 장애시인 국제 교류라 그 의미가 크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세상은 힘드니까 고통스럽다' 고도 말할 수 있지만, '힘들어도 즐겁다'는 이치를 깨닫는다"면서 "두 나라 시인들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작가로서의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리수아래는 10월 18일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장애-비장애어울림 콘서트'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3년 불교문화대전의 일환으로 열린 콘서트는 한국-몽골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 북콘서트로 진행된다.

임은호 기자

사회복지법인 혜명, 공식 후원회 발족

10월 6일, 민주평통 활동한 김상길 회장 중심



1958년 재단법인으로 문을 열어 1971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해 서울 금천구를 중심으로 자비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혜명이 설립 처음으로 공식 후원회를 발족했다.

사회복지법인 혜명(이사장 태원 · 도선사 주지)은 10월 6일 서울 마벨리에에서 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사진> 후원회장은 얼마 전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금천구협의회장으로 활동한 김상길 회장이 맡았다.

이날 혜명 이사장 태원 스님은 "52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혜명은 청담 스님과 제 은사이신 혜성 스님 등 어른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자비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며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듯이 모두가 조금만 합심하면 새로 시작하는 후원회도 어느 후원회 못지 않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김상길 후원회장은 "도선사만의 힘으로 290여 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기 어려웠을 텐데 후원회가 생겨 다행이다. 종교를 초월해 많은 홍보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사장 태원 스님은 김상길 회장에게 후원회장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산하시설장들은 후원금 200만원을 모아 법인에 기탁했다.

한편 법인에 따르면 산하 21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혜명은 예산과 인력 규모 대비 타 복지법인보다 상당히 적은 연간 1억여 원의 후원금을 모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혜명은 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거쳐 2032년까지 연간 36억 원을 모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호섭 기자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논문 공모

11월 17일까지, 상금 1400만 원
학술적 · 실무적 가치 등 기준 심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이 (사)한국관광학회와 함께 '2023년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대한 학술적 가치와 새로운 연구주제 발굴을 위해 기획된 이번 공모전은 11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공모는 템플스테이나 사찰음식에 관련된 자유주제로, 관심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공모 가능하다.

논문은 연구주제의 독창성, 내용의 완결성, 학술적 · 실무적 가치,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각 부문별 최우수상 2편(각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편(각 상금 200만 원), 장려상 4편(각 상금 100만 원) 등 총 8편이 선정된다. 선정된 논문에는 상과 함께 총 14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학회(https://www.tosok.org) 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http://www.k-buddhis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논문 제출은 이메일(tosokjo@gmail.com)로 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세계신앙문화포럼에 공식 초청

싱가포르서 제1회…500명 참가
종교간 대화 · 이해 목표로 소통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신앙문화포럼(International Forum on Global Faith and Culture)에 조계종이 참가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조계종 국제교류위원), 동국대 불교학장 황순일 교수(조계종 국제교류위원)가 공식 초청됐다.

세계신앙문화포럼은 지구촌 위기에 종교적 대안을 찾고자 불교계가 중심이 돼 개최하는 국제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종교, 신념, 문화간 대화와 이해 촉진을 목표로, 불교뿐 아니라 도교 · 이슬람교 · 힌두교 · 시크교 · 천주교 · 개신교 관계자 500여 명이 함께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포럼 첫째 날 '깨어있는 아름다운 별'을 주제로 발표한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다른 생명들과 연기적으로 공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정범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계신앙문화포럼이 세계적 위기에 종교적 해결책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은 모든 참석자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내영 기자

더프라미스, 예천군 수해 지원 마무리

10월 9일까지 5개 지역 대상으로
물품지원 · 심리지원 프로그램 펼쳐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가 10월 9일 올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에 대한 '재난 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사진>

예천군은 올해 7월 14~15일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농경지 파괴 등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더프라미스는 수해 피해가 가장 심각한 예천군 수한리, 수한리 한티, 벌방리, 진평리 등 5곳을 선정해 생필품을 지원하고, 수한리마을회관 · 수한리한티노인회관 · 벌방리노인회관 등 3곳에서 재난 후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펼쳤다.

특히 8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심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아로마스트레스 완화 및 이완 프로그램, 오감자극, 호흡과 이완, 재난 경험 나눔과 성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해지역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을 도왔다.

수한리마을회관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필요한 물품 지원과 함께 60년 만에 처음 겪은 수해로 놀란 마음까지 신경 써 줘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내영 기자